

용과 봉황

정 일 환

제일항역(주) 상무이사

I. 序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인 황하 문명의 주역, 중국이 마침내 용틀임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양과 서양이 각자의 틀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며 스페인, 영국, 독일 그리고 미국이 서양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을 때 중국은 중화의 땅이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왕조만이 바뀌는 동양사 중심의 위치에 서 있었다. 진시황이래 거대한 대륙이 이천여 년만에 중화 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됨으로써 마침내 여의주를 머금은 용의 나라가 된 것이다.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장쩌민으로 이어져 가는 중국의 지도력은 중심인물의 비전과 역할이 얼마나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군사 강대국이 아닌 종합적인 강대국의 발판을 마련한 덩샤오핑의 지략과 결단은 그 자신이 용의 화신이었음처럼 시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100% 성공하였다" 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경제 발전 측면에서는 100%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체제나 제도의 붕괴 없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건설에 성공하였다.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을 13억 인민에게 심어 주었다. "돈을 버는 것은 영광"이라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유 재산이 인정되고 자본주의 형태의 돈 버는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면서도 이념과 체제에 소용돌이 없이 안정돼 보이는 중국이라는 나라,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며 문화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는 나라, 중국 고유의 정신과 문자, 문화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전반적인 특징을 닮아 미국과 이란성 쌍둥이 같은 나라 중국.

우리 나라의 3위 교역국인 중국은 금년 11월 세계무역기구인 WTO 가입이 확정되어 있고 2008년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올림픽이 열린다. 공산주의 정부인 중화 인민공화국 수립에서 출발, 인민공사와 문화대혁명이라는 암울한 터널을 거쳐 흑묘백묘의 돌파구 마련 그리고 개혁·개방을 통한 세계 무대 등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세계의 어느 국가가 탐을 내지 않고 침을 흘리지 않겠는가. 단위 국가의 인구가 세계 최대임을 자랑하며 또한 중화권의 국가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대의 상권인 중국은 아무리 봐도 하늘로 끊임없이 비상하는 용이다.

무서운 힘을 가진 영물의 상징인 용에 대적할 동물이 있겠는가. 아무리 전설 속의 동물이라 할 지라도 인간 세상에서 용은-동물들 사이에서 싸워 이기는 호랑이나 독수리가 아닌-절대적인 힘의 동물임을 의미한다. 이제 중국은 역사 가운데 세계의 중심 국가라고 말하고 싶은 용틀임을 하기 시작하였다. 용틀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신감이 인민과, 정부와, 국가에 충만해 있다. 이러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중국을 상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II.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

만약 WTO가 금년 11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게 되면 외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무역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째,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할 것이며 고관세 보호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둘째, 방대한 국유 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하여 주요 은행에 자산 관리 공사를 설립, 이 곳에서 불량 자산을 처리할 것이다.

셋째, 그 동안의 노동 집약적 산업에 투자해 왔던 외국 기업의 투자 패턴이 점차 정보 기술 산업, 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동, 고부가가치산업에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모든 산업의 단계적인 해외 개방으로 주택, 통신료, 자동차, 책, 신문, 인터넷 사용료, 가전제품, 특급 호텔료, 보험료 등 중국 인민들이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던 제반 제품의 비용들이 상당히 인하되어 보편적인 구입 품목이 될 것이다.

다섯째,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상품이 중국으로 전보다 많이 수출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고기술에서 노동 집약 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데 중국 제품 수입 국가로 바뀔 것이다.

III. 북경 올림픽과 중국 경제 전망

우선 북경 올림픽과 관련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투자 총액: 2800억 위엔(US 337억)

SOC확충 1800억 위엔, 체육 시설

건립 170억 위엔, 환경 정비 713억 위엔, 부대 시설 건립 및 운영 경비 117억 위엔

위와 같이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시설 확충으로 내수 진작이 예상되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다국적기업간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며 중국 국내 기업들의 올림픽 관련 사업권 획득으로 인한 수익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할 것이며 중국의 규모 경제 특성상 최대 2백만 개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올림픽은 중국의 경제 대국화와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듯 북경 올림픽은 중국의 경제적 유발 효과와 세계화를 앞당기는 한편 중국 경제를 성장률 측면에서 약 10년 간 7~8%의 성장률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총 생산을 2000년 기준 US\$ 1조 1천억에서 2010

년 US\$ 2조 2천억의 목표 달성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분수령으로서 북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IV. 중국의 WTO 가입과 북경 올림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중국의 내수 진작과 소비층 확대에 따른 대 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 된다.

특히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급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증가하여 고가품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둘째, 건설 및 환경 분야 기업 그리고 첨단 디지털 설비 및 통신 장비 등의 특수가 예상되며 2008년의 북경 올림픽에서는 주요 통신 수단으로 제4세대 이동 통신의 선두 주자인 한국 기업의 중국 통신 시장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띠 것이다.

셋째, 한류 등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와 올림픽 개최 경험을 통한 중국 시장 진입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중국인의 소득 향상과 북경 올림픽 전후의 개방화 진전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WTO 가입 후 경영 환경 개선으로 외자 유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인근 국가인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외자 유치에 위축이 우려된다.

여섯째,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내의 경쟁이 격화되어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 축소가 초래하고 특히 다국적기업의 중국 진출 강화로 중국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V. 중국 물류에 있어 WTO가입 이후 FORWARDER의 발전 전망

세계적인 유수 포워더들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해운 시장을 자유화시키고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으나 중국 본토의 해운 시장은 점차로 개방될 것임을 중국의 교통부 장관이 이미 1999년에 밝혔다. 따라서, 외국계 포워더의 중국내 1급 대리점(항공), 1급 포워더(해운)의 보편적인 자격을 획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994년만 하더라도 중국 내의 대표적인 포워더는 SINOTRANS, EAS, PENAVICO 정도였고 포워더의 기능보다는 선사 대리점과 통관 및 내륙 운송을 위주로 하는 LOCAL FORWARDER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이후 외자 유치가 활기를 띠고 많은 국가의 공장들이 설비 등을 중국으로 이전, 수출 생산 체제로 들어가면서 교역량의 급속한 증가는 국역 물류 기업의 핵분열을 가져와 2001년 9월 기준으로 대표적인 항구 도시인 상해를 중심으로 심천, 광주, 청도, 천진, 대련 등의 동부 해안 도시에 항구별로 일천~이천 여개 포워더(중국계, 한국계, 기타 외국계 포함)가 난립해 있다.

항구도시마다 국내 포워더 업계에서 볼 수 있는 운임 덤핑 및 LCL Co-load Rate 덤핑 등이 포워더 역사가 10년 밖에 안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직도 중국 자체 포워더들은 원가 개념과 적정 이윤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화주에 대한 영업에 있어 선사 운임과 항공사 운임에 취급 수수료 정도를 받는 것을 포워더 사업의 근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포워더가 아닌 포워더 브로커로서의 회사가 중국인의 경우 약간의 자격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영업 허가가 나오는 신고제 위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어 포워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포워더의 영업 형태 역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PREPAID 화물의 경우 외상 거래가 대부분이며 미수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무담보 거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포워더들은 악성 미수 업체 때문에 곤경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외국계 포워더들은 중국 내에서 운임을 내는 PREPAID 조건인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계 화주들의 보편적인 외상 거래는 선적 후 익월 말 지불이다. 이러한 거래 관행을 알고 있어야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포워더가 시행 착오를 겪지 않을 일이다.

WTO가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서서히 해운·항공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소규모 외국계 포워더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계 포워더들

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포워더 혹은 해외 파트너를 통하여 포워더의 기능과 역할을 배웠고 선진국 물류업체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제적인 사업의 본질임을 이미 꿰뚫고 역으로 중국계 포워더들도 미국에, 한국에, 일본에, 유럽 등에 해외 지점을 설치하는 단계에 와 있다.

물론 중국은 포워더들이 사업하기에는 더없이 큰 시장이다. 하지만 그 곳에서 포워딩 브로커가 아닌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영업 전략과 자금력, 인맥 만들기과 중국 물류 전문가 양성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한다.

VI. 結

중국과 한국을 용과 봉황으로 비유하여 제목을 정해 보았다. 비와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용이라는 전설 속의 동물은 힘과 조화의 상징을 일컫은 것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앉으시는 의자 가장 자리에 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문양인 봉황은 상서로운 새로 알려져 있다. 용은 그 그려진 생김새만 보더라도 위압적이고 무섭다. 무엇인가를 삼킬 듯한 모습이며 우주상에 어느 동물이 용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봉황은 보기에는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여도 웬지 연약해 보이는 새로 보인다. 이러한 비유 또한 운명적인 것인지 모른다.

얼마전 GM의 웨고너 회장이 "아직까지 중국 전략을 수립해 놓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글로벌 전략의 실현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중국 전략을 짜 놓고 있더라도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전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중국이 무늬만 공산주의이고 실체는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라는 서구지향의 경제 체제로 단정하고 이 토대 위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인민 모두가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 마오쩌둥 주석이 정권을 잡던 시절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전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물론 2003년이면 다 은퇴한다고 하지만 장쩌민, 리펑, 주룽지 모두가 덩샤오핑과 연계되어 있으며 장쩌민 주석의

경우는 덩 샤오핑과 노동을 함께 하면서 공산당 활동을 해온 철저한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등소핑의 수제자로 봐야 한다. 덩 샤오핑의 생존시 그의 담화나 연설문을 보면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도 자신은 분명히 마르크스주의 신봉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와는 다른 변용된 이념이긴 하나 경제 대국 건설을 위해 이념과 사상을 포기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휘라는 것은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 생각은 지도자라면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까지 의식할 것이다.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분명히 세계사에 중국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빠르면 2010년대나 2020년대, 늦어도 2050년대는 이룩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다.

2001년 7월 13일 밤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있는 인파 앞에서 장 쩌민 주석이 상기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200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낼 것이다. 전세계 친구들은 베이징에 와서 올림픽을 참관하기 바란다." 이것은 곧 천지가 개벽한 중국의 변화를 세계에 증명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서구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선진국이며 경제강국이 되더라도 이념과 체제만큼은 사회주의 혹은 중화주의 아니면 중화 사회주의의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포워딩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 점을 늘 생각하면서 투자와 전략을 수집해야 한다.

첫째, 중국어는 필수이다. 그러나 먼저 역사, 문화,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며 특히 권력 투쟁에서 이겨 현재의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의 어록을 분석하면 향후 중국의 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회사 내에 중국 전문가 그룹 양성을 위한 STUDY GROUP을 만들어 영업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며 상황에 맞는 영업 전략과 조직 구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업체 끼리도 강한 분야와 취약한 분

야를 서로 상호 보완하여 각자 강한 분야의 물량 유치를 늘려 나가는 전략적 제휴가 구체적으로 성사되었으면 한다.

셋째,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FORWARDER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핵분열이 되어서는 불필요한 경쟁과 포워더의 도산만 가져올 뿐이며 선진국 대형 포워더들의 영업 터전만 제공해 주게 된다. 한국내 LEADING FORWARDER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 투자와 인력 양성과 적극적인 영업과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조금만 자신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FORWARDER를 차려 대표이사가 되려하는 포워더 업계 풍토에서 조직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에 야망을 펼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선사, 항공사 그리고 물류에 관련된 정부의 부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포워더가 탄생하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넷째, 세계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중국 물류 시장에서 한국 포워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물류 시장을 철저히 연구하여 그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배우고 말하려는 것에만 노력해 왔을 뿐 물류 방면에서 미국을 철저히 연구하여 신문이나 혹은 학술지 발표한 논문이나 기사들이 많지 않다.

중국은 현재 트럭 운송, 철도 운송, 수륙 운송, 항공 운송 등 물류 사업 전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막대한 자금의 투입과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중국의 경우 중요 사안은 만만다가 아니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의 물류 발전 모델이 미국인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미국 물류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 물류 시장의 앞날을 어렵듯이나마 예측할 수가 있다.